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2차)

개최일시	2023. 1. 11(수) 17:00~17:50	회의장소	본관 대회의실
참석자 (13명)	김민지(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경영대학 공동대표), 남경희(관리처장), 류조은(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사범대학 공동대표), 박귀천(학생처장), 박인휘(총무처장), 배소현(예산팀장), 신하운(교무처장), 이상은(삼일회계법인), 이서영(음악대학 공동대표), 이수지(대학원 학생회장), 이정민(인문과학대학 공동대표), 정제영(기획처장), 조민서(간호대학 공동대표)		
불참자 (0명)			
안건	2023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심의 및 의결		
내용	<p>■ 개회</p> <p>- 위원장이 회의 녹음 절차 및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급일 회의 녹음에 대하여 참석위원들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다. 참석위원 전원이 녹음 동의를 작성하여 회의 녹음을 개시하다.</p> <p>- 기획처장이 회의록 작성 일정에 대해 설명하다. 2차 회의는 학생위원 측에서 초안을 작성하는 회차로 홈페이지 게시 일정을 감안하여 1월 16일 월요일 오전까지 회의록 초안이 공유될 수 있도록 안내하다.</p> <p>- 위원장이 총 재적위원 13명의 위원 중 12명으로 과반수가 참석하여 회의 개최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최하다. (*외부전문가 위원이 개회 이후 참석하여 전원 참석하다.)</p> <p>■ 회의내용</p> <p>1. 2023학년도 등록금 책정(안)</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가. 학부 입학금 폐지 및 후속 조치(안)</p> <p>나. 학부 등록금 책정(안)</p> <p>다.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p> <p>라. 학부 신설학과 정규등록금 책정(안)</p> </div> <p>- 위원장이 기획처장에게 학부 입학금 폐지 및 후속 조치(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p>		

- 기획처장이 2023학년도부터 학부 입학금이 폐지되며, 그 후속 조치(안)으로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입학금 실비용에 해당하는 189,000원을 등록금에 산입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 공문을 근거로 설명하다. 덧붙여 입학금 실비용 산입 전후 전년 대비 등록금 변동여부를 부연 설명하다.

- 위원장이 학부 등록금 책정(안),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학부 신설학과 정규등록금 책정(안)의 보고를 이어서 한 이후에 전체 질의를 진행할 것을 위원들에게 제안하다.

- 위원들이 동의함에 따라 기획처장이 학부 등록금은 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입학금 실비용 등록금에 산입하고, 그 외 정규등록, 학점등록 및 계절학기 수업료 동결, 각 대학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동결하여 책정함을 설명하다. 아울러, 2023학년도에 신설 및 변경되는 인공지능대학의 인공지능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의 등록금 책정(안)을 상세히 설명하다.

- 위원장이 2023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전 위원에게 질문을 요청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학생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배부할 수 있을지 질의하고, 기획처장이 등심위 안건 상정 및 회의자료 배포는 사전 요청을 통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별도 자료 배포를 대신하여 질의 형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도록 제안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자료를 보며 질의하는 것이 제시한 의견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배포 가능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위원장이 절차상 본 회의에서는 자료 배포를 대신하여 해당 내용을 질의에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추후 등심위에서 자료 제공이 필요한 경우 미리 송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하고, 위원장이 배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료를 공유하고 논의를 통해 회의 자료에 포함하는 절차를 다시 한 번 설명하며 2023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질의해주시기를 요청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이전 등심위에서 학생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입학금 완전 폐지를 주장하였고, 학교는 재정상 천천히 감소시켜 나가고 있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올해 입학금을 등록금에 산입하게 된 경위를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입학금 폐지는 정부의 정책적 결정 사안으로 입학금 폐지의 재정적 충격 흡수를 위해 5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2017학년도의 입학

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학금 실비용으로 인정하여 입학금 폐지 첫 번째 해에 등록금에 산입하도록 안내된 것임을 설명하고, 이는 이화여대만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진행된 사안임을 부연하여 답하다.

- 총무처장이 학부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등록금 책정(안)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사이에 신설된 타 대학의 데이터사이언스 유사 전공의 등록금 책정 수준이 반영되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타 대학의 등록금과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인문과학대학 수업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교육비 차이도를 고려하여 타 대학과 비교 시 적정 수준의 등록금을 산정하였음을 답하다. 아울러, 본교 등록금은 각 전공별 특성 차이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있음을 덧붙여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2017학년도 입학금의 20%를 등록금에 산입하여 책정하고 그 금액을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전 금액 모두 국가 장학금으로 사용되는지 질의하다.

기획처장이 국가장학금은 대학이 아닌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해당 입학생(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입학금 실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입학금 실비용 수입 예산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아님을 답하다. 현재 등록금 인상이 진행되는 대학들도 많지만 재정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본교는 모두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다시 한 번 설명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학부 입학금 실비용과 관련하여 2024년도에도 189,000원이 등록금에 산입되는 것인지 질의하고, 기획처장이 추후에도 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등록금에 산입될 예정임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등록금이 입학금과 수업료의 합산인데, 그간 입학금이 단계적으로 줄어들면서 등록금이 동결된 것은 결국 수업료가 계속 인상되어 온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그 동안 입학금과 등록금으로 구분하여, 입학금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등록금을 동결함으로써 입학금 감축금액만큼 학교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을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등록금에 산입하는 입학금 실비용이 추후 학교의 재정 상황이나 운영 계획 변화에 따라서 산입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지 질의하다. 해당 금액이 국가장학금 II 유형으로 지원되기는 하지만 결국 해당 장학금의 수혜 대상이 아닌 학생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입학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하다.

- 기획처장이 등록금 정책은 달라질 수 있음을 답하다. 다만,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등록금은 14년째 동결되어 교비회계 전체 예산에서 등록금 수입 대비 비등록금 수입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등록금을 인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설명하다. 해외 대학 사례를 통해 등록금을 인하를 추진하기 보다는 대학에서는 교육 서비스를 확충하고, 정부는 학생의 등록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임을 부연 설명하다.

- 예산팀장이 기존의 국가장학금II 유형으로 지원받았던 학생만이 아니라 입학금 실비용이 산입된 학생들의 경우 장학금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입학금 실비용 산입에 대한 학생들의 실질적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충하여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재학생 설문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등록금으로 인한 부담감과 교육비 환원을 수치 대비 낮은 체감, 등록금의 불투명한 사용처 등을 사유로 총 74%의 학생들이 등록금 인하를 희망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추후 등록금 인하 계획 여부와 인하가 불가능하다면 학생들이 교육비 환원율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교육비 환원율과 학교 예산 구조 등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설명하고,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학 본부가 소통하여 추후 설명회 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답하다.

- 위원장이 기획처장의 제안에 동의하며, 대학과 학생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부연하여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소통과 관련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할 경우 홍보나 실질적 참여 측면에서 제약이 예상됨에 따라 대학 본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위원장이 학생처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면 대학 본부에서도 논의 후 의견을 전달할 것임을 답하다.

- 간호대학 공동대표가 기존 소프트웨어 학부 등록금과 동일하게 책정된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정규등록금 책정(안)과 관련하여, 기존 학과와는 차별점을 가지고 학과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은 기존 유사학과와 동일하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등록금은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시설 사용 및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 등의 특성에 따라 분류 체계를 가지고 책정하므로 기존 학과와 향상 다르게 책정되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고,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등록금은 이러한 분류 체계를 고려하였을 때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진 소프트웨어학부의 컴퓨터공학과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책정하였음을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대부분의 등록금이 단과대학 단위로 책정되는데 인공지능대학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대학 단위의 등록금을 책정하지 않고 데이터사이언스학과의 등록금을 별도 책정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인공지능학과의 경우 실습과 시설 사용률이 높은 교과과정상의 특성과 타 대학의 유사 학과의 교육비 차이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부분임을 답하다.

- 음악대학 공동대표가 예산(안)과 대비하여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 지출이 발생하거나 기부금과 같은 불확실한 수입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대학의 자금 부족이 교육의 질 하락으로 귀결될 것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비방안이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현재 시점에서 재정 악화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고민하기 보다는 사전에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기부금 확보, 에너지 절감 조치 등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답하다. 지속적인 재정관리를 통해 후속 세대에 투자하는 것이 학교의 발전 방향이라고 부연 설명하다.

- 예산팀장이 어떤 경우에도 본교는 학생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고, 재정 상황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우려하는 수업의 질 하락 등 학생들의 학업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여 부연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재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학교의 교육비 환원율이 학생들에게 체감되도록 교육 환경 구축에 노력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여 말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등록금 책정(안)과 관련하여, 학과 설립 초기에는 단과대학 건물이나 기자재 등의 부족으로 기존의 건물 및 기자재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인하하여 책정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신설학과의 경우 기존학과보다 운영에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지만 편제 완성을 예상하고 등록금이 책정함에 따라 현 시점 기준 투자

비용 대비 등록금 책정 금액은 더 낮은 수준임을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재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2021학년도 힘내라 이화 장학금과 같이 2022학년도 1학기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보상하기 위한 등록금 반환 계획 여부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힘내라 이화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의 개념이 아닌 중앙 장학위원회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팬데믹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위기 속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들의 학업 장려를 위하여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한 장학금임을 설명하다. 본교는 Ewha Safe Station 운영, 온라인 수업과 혼합형 수업 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교육환경 조성에 지출한 비용은 코로나 이전과 유사하였으며 등록금 수입을 교육 실습 환경 조성 등 학생 교육비 지출로 모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였음을 부연 설명하다.

- 학생처장이 힘내라 이화 장학금은 당시 공지하였던 바와 같이 코로나19상황이나 비대면 수업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미래형 교육 추진과 학생들의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격려 취지의 장학금이었음을 덧붙여 설명하다.

- 위원장이 질의응답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며 2023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의결할 것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 인문과학대학 공동대표, 음악대학 공동대표, 간호대학 공동대표 총 5인이 반대하고, 대학원 학생회장, 위원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8인이 찬성하여 2023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을 의결하다.

• 의결사항

▶ 2023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 학부 입학금 폐지 및 후속 조치로 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입학금실비용 189,000원을 등록금에 산입
- 학부 정규등록금, 계절학기, 학점등록금 동결
(단, 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입학금실비용 189,000원을 등록금에 산입)
- 대학원 입학금 및 정규등록금, 계절학기 및 교과목등록금, 연구등록금, 논문등록금 동결
- 학부 신설학과 등록금 책정: 인공지능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 폐회

- 위원장이 의결사항을 확인하고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23년 1월 11 일

확 인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신하윤	신하윤	위 원	이상은	이상은
위 원	김민지	김민지	위 원	이서영	이서영.
위 원	남경희	남경희	위 원	이수지	이수지
위 원	류조은	류조은	위 원	이정민	이정민
위 원	박귀천	박귀천	위 원	정제영	정제영
위 원	박인휘	박인휘	위 원	조민서	조민서.
위 원	배소현	배소현			

작 성 자

사범대학 공동대표 황 유 하 (인 황유하)